



조선/기계/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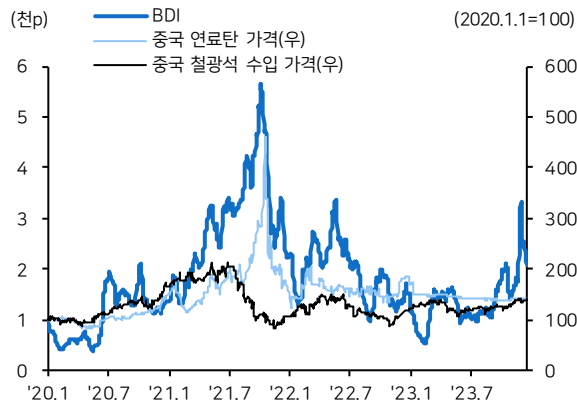
02. 6454-4879
kiyeon.bae@meritz.co.kr02. 6454-4873
jungha.oh@meritz.co.kr

2024. 1. 2 (화)

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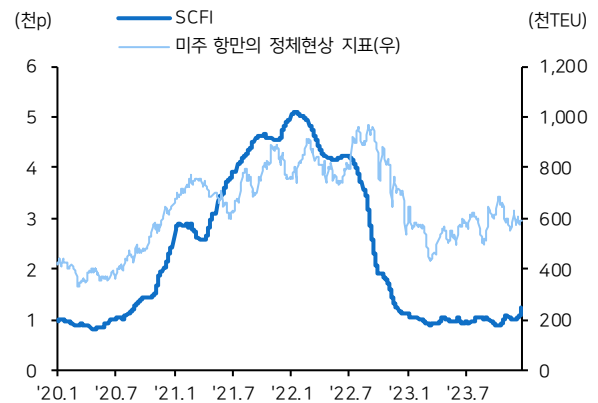
건화물운임(BDI)

2,094.0p(-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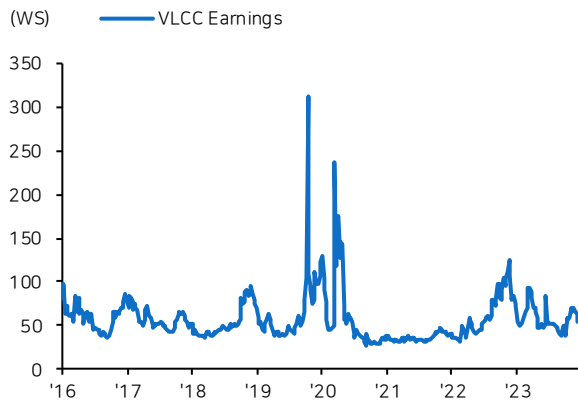
컨테이너운임(SCFI)

1,759.6p(+504.6p WoW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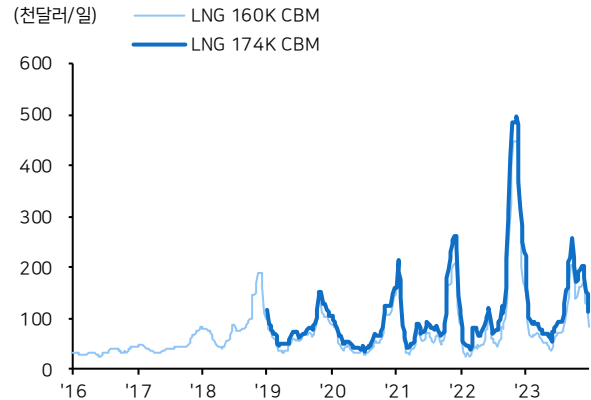


VLCC Spot Rate

52.8p(-1.7p WoW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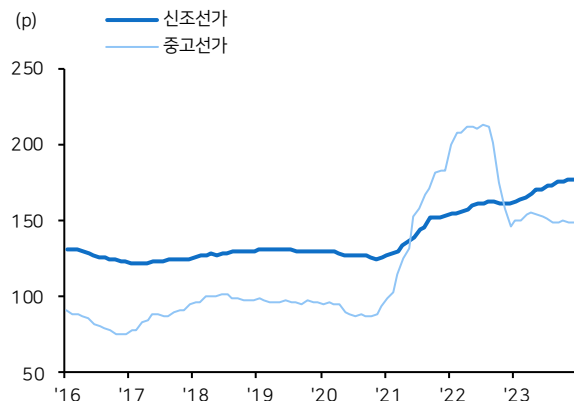


LNG Spot 운임

78.8천달러(-2.5p WoW)
111.0천달러(- WoW)

신조선가

178.4p(+1.1p WoW)



중국 내수 후판가격

576.0달러(- DoD)



자료: Clarksons,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한화오션, 삼성중공업에 선박 블록 납품

한화오션이 삼성중공업에 상선용 블록을 제작해 납품한다고 보도됨. 계약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삼성중공업이 2023년 7월 수주한 16,000TEU급 메탄을 추진 컨테이너선 16척 중 5척에 쓰일 예정으로 알려짐. (선박뉴스) (<https://t.ly/D1WOC>)

Maersk said to be suspending Red Sea transits again after new Houthi strike

AP Moller Maersk가 최소 이틀간 홍해 및 수에즈운하 항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보도됨. 주말 중 예멘 후티 반군이 선박을 다시 공격했기 때문으로 알려짐. 미군이 헬기 사격으로 후티 반군 선박 4척 중 3척을 침몰시켰다고 언급됨. (Tradewinds) (<https://t.ly/-sXPZ>)

Hapag-Lloyd, Japanese shipping firms continue to re-route from Suez Canal

Hapag-Lloyd, MOL 등이 안전상의 이유로 수에즈운하 우회를 지속할 계획으로 보도됨. Hapag-Lloyd는 1월 2일 재검토를 시행할 계획으로 언급됨. Hapag-Lloyd와 Maersk는 아프리카의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화주들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, 아시아-유럽, 아시아-북미 화물 운송 기간 연장을 며칠에서 몇 주까지 공지하고 있다고 언급됨. (Hellenic Shipping News) (<https://t.ly/rZ9yK>)

Maersk, 메탄을 벙커링인프라 계속 구축

AP Moller Maersk는 현재 건조 중인 차세대 이종연료 컨테이너선에 필요한 친환경 메탄을 벙커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보도됨. 일본 요코하마시 및 Mitsubishi Gas Chemical과 MOU를 체결했는데, 요코하마항에서 그린 메탄을 벙커링에 필요한 운영 타당성을 검토하고, 필요한 항만 시설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짐. (선박뉴스) (<https://t.ly/ZBYLF>)

2024년은 주력 수주 선종 바뀐다

신조선 발주 선종은 컨테이너선, LNG선 및 자동차운반선에서 탱커와 벌크선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도됨. 이 두 선종의 발주량도 크게 급증하지는 않겠으나, 현 운항 선대 대비 탱커 발주 잔량이 최저 수준으로 알려짐. 기본적으로 선가는 2023년보다 약간 낮겠지만 정점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됨. (선박뉴스) (<https://t.ly/2H9ZI>)

정부, 조선업 인력 14,000명 공급..."3분기 만에 달성"

법무부에 따르면 비자제도 개선 등으로 조선업계에 필요인력 14,000명을 공급했다고 보도됨. 연초 14,000명으로 예상됐던 조선업 인력 부족분에 대한 공급을 3분기만에 조기 달성했다고 알려짐. (뉴시스) (<https://t.ly/EnYr7>)